

January 21, 2024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인도: 김원기 목사
Offering 헌금기도	사회자 Presider
● Praise 찬 양	주님 이곳에
● Prayer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357장(통397, 주 믿는 사람 일어나)
Prayer 기 도	정인봉장로
Announcement 교회소식	사회자 Presider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요한복음4:46-54
Songs of Praise 찬 양	특별찬양
Sermon 말 씀	김원기목사
“하나님의 눈으로”	
● Hymn 찬 송	360장(402장, 행군 나팔 소리에)
● Benediction 축 도	김원기목사

수요일 성속한오전	❖ 수요일 오전 10:00
▣ 사랑의 동산교회 Coffee Break(2월7일, 오전10)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7:30
▣ 중보기도	

기타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화-금 am 5:30 토 am 6:00
▣ 주일 예배	❖ 1부 오전 09:00(교육관) / 2부 11:00(본당)

구역별 모임 안내	
▣ 믿음:채봉재(벤나이스)	▣ 섬김:장정님(노스리지)
▣ 사랑:고성자(서먼옥스)	▣ 기쁨:박계옥(팜데일)

† 선교의 끈을 쥐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1.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안에 거하라”(요15:9)	
2. 2024년 1월 행사안내	
1)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성가대연습실) 담당선생님: 제임스조,이선화집사	
2)1월달은 신년 대심방을 합니다. (서먼옥스-노스리지-LA)	
3)2월7일부터 성경공부가 있습니다.(Coffee Break, 오전10시 교육관)	
4)금요일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금요일 7시30분 본당)	
5)성숙한 외출 시즌2가 5월13일부터(잠정) 노아의 방주(Ark Encounter) 견학수련회로 진행 됩니다. 오늘까지 등록바랍니다.(채희옥집사)	
6)이번주부터 예수님의 표적(이적)을 중심으로 설교를 진행합니다.	
# 2부 예배 대표기도 순서	
1/21정인봉장로 1/28이화정장로 2/4채봉재권사 2/11사라톨권사	
# 협력선교사	
스페인 말라가/북아프리카 (남사현 남현진)	
네팔 (이종원 최고임)	
† 교육부예배(EM) : 주일 오전11시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전 안내석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 기도 : 1부- 합심기도	• 2부- 정인봉장로
▣ 안내 : 1부- 예배위원	• 2부- 예배위원

교회를 섬기시는 분	
▣ 교육전도사 : John Shin	▣ 시무장로 : 조흥진 교창우 정인봉
▣ 반 주 자 : 이 윤 희	▣ 음향간사 : 장정관

헌 금 OFFERING Devotion	
십의일조 : \$ 1,550.00	선교헌금 : \$ 310.00
주일헌금 : \$ 1,505.00	심방감사 : \$ 90.00
감사헌금 : \$ 120.00	신년헌금 : \$ 80.00
EM : \$ 200.00	
합 계 : \$ 3,855.00	

요한복음4:46-54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 달라고 찾아가 왕의 신하에게 아들의 병보다 왕의 신하의 믿음없음을 지적하십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1. 예수님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47)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46절에서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가나까지 21마일 정도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벨리지역에서 LA 정고 되는 거리입니다. 아마 이 고관은 아들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이 들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사렛의 목수인 예수님에게 가보기로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47절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아비의 심정을 헤아려보십시오. 심장이 터질 것 같을 것입니다. 사는게 사는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걸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신하라 하더라도 자식의 죽어가는 모습에는 그의 품위와 체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니다. 자식을 치료할수만 있다면 이라는 간절함이 그를 예수님을 찾게 한 것입니다.

2. 믿음이 있어야 한다.(48)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뜬금없이 48절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왕의 신하가 아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불신이 가득 차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힘겨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라면 내 속에 믿음이 식어지고, 작아진 믿음입니다. 이것부터 고쳐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49)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신하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죽기 전에’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려오소서’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같은 자리에 있어야만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같아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부질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주님과 의 거리와 공간은 2천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땅에 계시지 않으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죽고 나면 할 수 없다’ 49절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은 것이지,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안에 거하라” (요한복음15:9)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